

환경관리는 기업 뿐 아니라 우리모두의 공동과제입니다

■ 편집부

열은 안개너머였지만, 정문을 향해오는 그가 이곳 조선맥주(株) 마산공장의 黃秀男환경과장인듯 싶었다.

壬申年 벽두에 만난 환경인, 그 주인공이다. 간략하나마 일목요연하게 본사에 대한 소개를 하며 앞서는 黃과장을 따라 실험실로 들어섰다. 그의 편안한 미소때문에 졸전의 서먹함은 이내 가셨다.

“지금까지는 폐수를 최종처리하고 난후 그대로 강으로 흘러보냈었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회사에 보탬이 될만한 일을 해보자는 생각끝에 동일업계에서는 최초로 혐기성 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한 후 부터는 회수된 메탄가스를 보일러에 점화시켜 증기를 생산해냈다. 에너지절약측면에서 더없는 개가를 올린 것이었다. ‘물’에서 ‘불’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기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되기전까지 현장에서 새우잠을 자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요즘 마스크에서는 환경오염의 모든 원인이 기업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환경관리인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또한 제 직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아 이후 회사측에서는 ‘환경부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달리했음은 물론이고 올해 설비재투자에 대한 예산 30억원을 승인해 줄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년동안 줄곧 환경업무만을 담당해온 베테랑답게 黃과장은 매사를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완벽한 방지시설에서 1백%정상가동을 하였는데 결과치가 기대이하로 나왔을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하는 여유를 갖자고 얘기한다. 이와함께 반드시 해야만하는 자신들의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해줄 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요즘 마스크에서는 환경오염의 모든 원인이 기업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환경관리인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또한 제 직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黃과장은 환경관리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동의 과제를 강조한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듯이 이에 따른 의무가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요즘 세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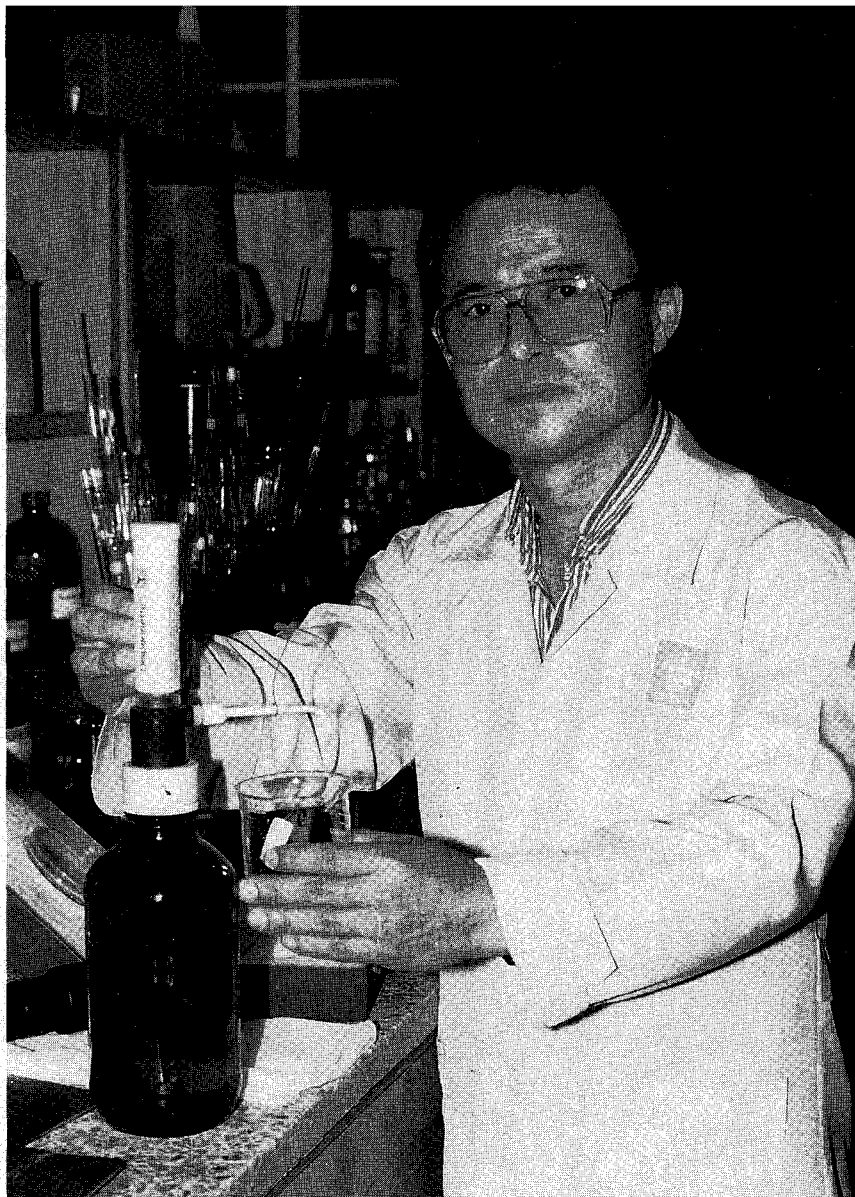
그가 직접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내막을 들여보자면, 새벽4시 30분이되면 어김없이 국민학교 6년생인 막내아들을 깨워 신문배달을 하는데, 그 시간에는 비닐봉지를 갖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것은 가장 깨끗한 청소는 버리지 않는 것임을 스스로의 체험을 깨닫게 하는데 있다고,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소박한 바람도 없지 않다.

‘업무’를 떠난 일상생활에서도 그의 ‘프로근성’은 여지없이 나타나있다. 30여년간 계속 해온 우표수집이며, 60개국 외 국지표 5백여점, 1백여개국 외 국동전 및 기념은화1천여점을 모아온 것이 그렇다. 우표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배울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귀중한 문화 유산으로 물려줄 계획이다.

현재 2천여종, 10만여장을 소장하고 있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우표는 1884년 우정총국에서 발행한 우리나라의 최초 우표인 문위우표. 신진개혁파들이 우정총국의 개국업무와 동시에 사용할 예정으로 일본에 5종 우표 인쇄를 의뢰했으나 업무개시일전 2종만 도착했을 뿐 나머지는 감신정변의 실패로 미발행됐다고 한다.

그는 또한 '86년 전국사진촬영대회와 '87년 환경보전사진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시간이 날때마다 카메라를



▲ 실험실에서 만난 黃과장. 사내에서 그는 ‘환경박사’로 통하는 베테랑 환경관리인이다.

들고 ‘아름다움’의 장면들을 담기에 바쁘다. 그래서인지 피사체에 셔터를 누르던 자신이 피사체가 되는 상황을 어색해 하기도.

대외적으로는 경남협의회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黃과장은 관리인들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하며, 후배들에게도 환경관리인 모두의 힘을 합해 본연의 책임을 다할것과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할 것을 당부했다.

“黃과장은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랄 겁니다.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이 투철하며, 책임을 다할줄 아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회사의 환경업무에 관한 한 역사의 산증인이 될것입니다.”

양동훈 상무이사의 말이다. 이 이상 사족을 단다면 오히려 허물이 될듯 싶었다. ❏